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행 1:3)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부활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론가 숨어서 혼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 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못 자국난 손을 보이시고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참조, 요 20 장).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개인에게, 혹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두려워하던 열한제자와 디베랴 호수에 있던 일곱제자들에게 거기에서 오백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장소도 예루살렘, 엠마오, 갈릴리 호수, 베다니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이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드는 것은 부활의 종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행 1:4,5)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성령의 주도하에 모든 민족(마 28:19)과 땅 끝까지(행 1:8)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힌두권, 이슬람권, 불교권도 복음의 능력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영향 가운데서도 이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보고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미전도족속으로 분류되는 일본이지만 언젠가는 일본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는 날이 오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신하며,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본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1. 이누야마교회 (犬山教会) 에서 카츠타다이교회 (勝田台教会) 로 부임

저는 이누야마교회(나고야권)에서 카츠타다이교회(수도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시작한 이누야마교회에서의 사역을 2022년 4월말로 마치고(11년간의 사역), 오늘부터 카츠타다이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금) 이누야마교회가 소속한 중부중회와 카츠타다이교회가 소속한 히가시칸토중회에서 저의 이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일본으로 파송을 받은 우리 부부는 언어 훈련을 포함해서 21년간을 일본 기독교개혁파교회와 연관을 맺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기독교개혁파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우리부부에 있어서 중요한 소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사명으로 알고, 일본 기독교개혁파교회에서 사역을 꿈꿔 왔습니다.

이제 남은 10년을 카츠타다이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마마츠교회와 이누야마교회 그리고 중부중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살려서 카츠타다이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71년에 개척전도를 시작한 카츠타다이교회는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현재 30여명의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츠타다이교회도 연로한 성도들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전도에 더욱 힘을 기울일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는 고등학교가 4개가 있고 그 중 하나는 미션스쿨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치바현 (千葉県) 야치요시 (八千代市) 카츠타다이로 동경과 나라타공항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야치요시의 인구는 20 만명 정도이며, 치바현(627 만명)에서 인구수로 7 번째입니다. 매년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야치요시에도 여러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총수는 6,110 명이며, 그 중에 중국인(1,340 명)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1,016 명), 필리핀인(855 명), 브라질인(668 명), 한국인(415 명) 순입니다.

그리고 6 월달 선교편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50 주년선언-「전도의 선언」(6 번째)

지난해(10 월, 12 월)와 올해 2 월~4 월까지의 선교편지에 이어서 이번 선교편지에서도 특히 50 주년 기념선언(1996 년 5 월) 중의 하나인 「전도의 선언」을 번역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도의 선언은 척박한 일본 땅에서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의 전도론이기도 합니다.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눅 13:6~9)처럼 보이지만, 일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주 (主) 의 1996 년 5 월 3 일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창립 50 주년기념 임시대회

일본전도의 시점 (視点)

10. 전도를 위한 교회개혁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관점에서부터 교회 전체의 본연의 모습이 끊임없이 다시 보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현대에 유효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으로서 성경에 충실한 신학의 연찬(研鑽)에 열심히 힘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신앙고백에 있어서 더욱이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과 모범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해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도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사랑의 행위에 힘씁니다.

교회는 그 머리되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바르게 다스림을 받을 때야말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풍성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지혜와 은사에 의해 질서 좋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장로주의라고 불리우는 교회정치를 경영하고 그 제도에 익숙하도록 힘씁니다.

11. 교육과 전도

교회는 어린 아이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년대의 사람들로 부터 이루어지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책임을 기억합니다. 정신적 혼미와 도덕적 혼란이 현저한 현대에 있어서 바른 복음이해에 기초로 한 교육적 전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서 계속함으로써 그 영적 성숙을 지향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특히 내일의 교회를 짚어질 청소년에 대한 전도와 교육이 불가결한 것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젊은이의 현실을 직시하고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고와 관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에 있어서 교육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크리스천 흠의 형성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의 자녀들은 장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소명에 잘 응답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신적(有神의) 세계관에 서서 일반교육 기관의 필요를 자각하고 가능한한 실현에 힘씁니다. (계속)

』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새로운 임지인 카츠타다이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일예배에 새신자들이 인도되게 하소서
2. 이누야마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소서
3.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울러 6 개 노회, 140 여개의 교회들이 일치단결하여서 복음전파와 교회개혁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4. (이 기도제목은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의 공식 기도제목입니다)
러시아가 더이상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않고 곧 바로 철수하게 하소서
5. 주은/주향:
주은-미국에서의 공부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향-교회에서의 외국인 간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6.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7.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일본교회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2022년 5월 1일(주일)

일본 이누야마(犬山)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